

2017년판 통상백서

- 2017년판 통상백서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의 엔진이며 격차축소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21세기형 통상정책이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인클루시브(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다음 3가지 점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나가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 첫째,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통상규칙이 반드시 필요함
- 둘째, 상품, 자금, 인간,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결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연결산업화(Connected Industries) 및 Society 5.0을 실현
- 셋째, 중소기업과 지역 등을 글로벌경제에 참여시켜 인클루시브 성장을 실현

1. 장별 주요 내용

제 1부 : 세계경제편

□ 세계경제 동향

- 2016년 세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비 3.1%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8년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기조에 있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한 편
- 2017년 세계경제는 2016년 후반이후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했으나 IMF는 세계 GDP 성장률을 2017년 3.5%, 2018년 3.6%로 예측하고 있음. 세계경제는 중기적으로는 침체방향으로 기울고 있음.
-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세계 무역·투자의 정체, 소득 격차의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침체압력이 강함
- 이에 더하여 보호주의 압력의 강화, 예상외의 급격한 세계금융환경의 악화에 의한 신흥국에의 영향, 중동 및 아시아 등의 지정학적인 긴장 등의 리스크에도 가일층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세계무역 동향

- 2016년 세계무역은 31조 9,128억 달러로 전년비 -3.8%로 2년 연속 감소
 - 2012년에 세계 무역량의 증가율이 실질GDP 성장률을 하회한 이후, 그 상태가 5년간 지속되고 있어, IMF와 WT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슬로우 트레이드」라 부르고 있음
 - 세계무역의 신장률 둔화 요인으로 ①세계적인 성장률 둔화, ②2011년 이후 유가 하락, ③신흥국의 중간재 국내 생산화 등을 들 수 있음
- 재화·서비스 수지와 GDP성장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화·서비스수지의 무역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저성장에 빠지는 것은 아님
 - 또한 재화·서비스수지 흑자 국이라 하더라도 저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반면, 재화·서비스수지 적자 국이라 하더라도 중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는 바, 재화·서비스수지의 여하와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임
 - 한편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수지액보다 무역액 증가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음

제 2부 : 분석편

제 1장 지속가능한 글로벌화

- 자유무역은 경제의 파이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구매력 향상, 생산자에게는 생산성 향상 등 거시·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
- 최근 무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격차확대를 배경으로 글로벌화에 대한 불만이 대두되고 있음
 - 무역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IMF나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소득격차는 기술혁신에 의한 부분이 크고, 무역은 노동정책, 교육정책과 함께 격차 축소에 기여함
- 한편, 자유무역이 격차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안·불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격차축소에 기여하는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 시킴으로써 무역의 이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
- 일본의 제조업고용에 대한 무역의 영향은 지방자치체별 노동자 1인당 수출액 변화 및 수입액 변화 그 어느 것도 제조업고용의 변화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제 2장 일본 무역정책의 방향성

- ICT(정보통신기술)와 역자유화 등에 의해 GVC(Global Value Chain : 글로벌가치사슬)의 비약적 발전(제조공정의 분산과 스마일커브의 변형),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를 극복해야한다는 강한 여론의 등장, 신신 무역이론*이 나타내는 글로벌 활동에 대한 참가지원 수요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21세기형 통상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 Melitz 등의 소위 신신 무역이론은 종래 무역이론과는 다르게 동일업종 내에서도 수출 고정비용의 부담 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
 - 그동안 글로벌 경제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 중에도 정책적 지원여하에 따라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고 함
 - 즉 글로벌 활동에 대한 참가지원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조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 상품, 자금,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글로벌경제 참여에 대한 저변을 넓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른바 고품질 통상규범에 근거한 통상시스템을 세계에 확대시키는 것임
- 21세기형 통상정책은 ①이노베이션 지원, ②인클루시브 성장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제 3장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사회 창조를 위한 노력

- 일본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글로벌 기업의 수익력 향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구미에 비하여 가격결정력(부가가치 디플레이터 : 제품차별화력과 브랜드력을 나타냄)이 현저히 약함. 구미기업에 비하여 일본기업이 가격경쟁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생산성 상승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고용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가 발생하고 있음
 -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산업이 생산성은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자수는 감소하고 있음
 - 생산성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기계·장치, 수송기계, 부동산, 통신 및 도매 등 5개 업종으로 미국(13개 업종)과 독일(18개 업종)에 비해서는 적으나 많은 산업이 생산성과 고용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으로 일본기업의 수익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투자를 강화하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며 과당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기업수익력 개선을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물 효과의 발생을 억제하여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와 수출의 촉진이 필요
-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계기로 한 혁명을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고도로 융합되어 쾌적하고 활력에 넘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초스마트한 사회, Society5.0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변혁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데이터, 기술, 인간, 조직 등 여러 가지 것들의 연결에 의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적 과제 해결이 가능한 연결산업화(connected industries)를 목표로 함
- 이러한 새로운 산업사회 실현을 위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3가지 과제가 있음
 - 첫째, 제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개인이 보다 나은 인재로서 능력·스킬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인적투자를 개인 수준, 기업 수준 나아가 사회 수준에서의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둘째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또는 산업간 교류를 촉진하여 이노베이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대응이 중요함
 - 나아가 세 번째는, 보다 고도의 지식·경험을 가진 인재와 기업을 일본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 내적인 국제화로서 고급인력의 영입과 대내 직접투자확대를 가일층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 4장 일본의 포용적(인클루시브) 성장을 위한 노력 강화

- 중견·중소기업의 직접수출액은 신흥국경제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2000년대 전반에 크게 증가
 -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일단 부진했으나 세계경제회복 등을 배경으로 2014년엔 다시 증가
- 한편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국·독일·프랑스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비율이 낮음
 - 이에 계속 직접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부딪치는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직접수출기업이 5%로 적은편이나 간접수출기업은 기업 수 기준으로 전체 일본기업의 약 40%, 부가가치의 절반을 점함
- 간접수출 역시 직접수출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매출액뿐만 아니라 경상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
- 간접수출의 과제로는 해외고객수요의 파악과 함께 판매력 있는 중개기업의 확보를 열거하는 기업이 많으나 해외 판로에 강점을 지닌 기업은 도매업을 하는 기업 중 일부에 한정되고 있음
 - 따라서 간접수출을 한층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도매 기업과의 매칭 및 지역상사의 수출기능 강화가 중요
- 또한 국제 e-커머스는 해외고객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결제시스템의 신뢰성, 상품배송 관련 리스크 등의 과제도 많음

제 3부 정책편

제 1장 국제정책협조

- 2016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 영국의 EU탈퇴국민투표 등을 비롯하여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음. 구미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제정책협조 논의와 일본의 대응에 관하여 미일 간, 미일유럽 간, G7 등의 포럼과 테마 별로 소개

제 2장 통상협정을 비롯한 규범 형성

-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 형성에 관한 노력에 관하여, EPA와 FTA 등을 비롯한 경제연대협정, WTO, 투자관련 협정, 조세조약 등을 소개

제 3장 신흥국전략

- 글로벌화의 혜택을 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으로의 전개가 점점 중요
 - 신흥국 중에서도 아프리카, 러시아, 중동, ASEAN 및 인도 등에 관하여 주로 2016년 중 일본의 대응을 소개


제 4장 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기업의 연결(Connected Industries)창조를 위한 대응

- 제 4차 산업혁명 등을 포함한 경제변화에 대하여 앞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소개

제 5장 인클루시브한 성장에 기여하는 일본의 노력

- 인클루시브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지역이 GVC로 이어지는 것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여기서는 중소기업·지역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 인클루시브 성장에도 기여하는 시책을 소개

2. 시사점

- 2017년판 통상백서는 21세기형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음
- 21세기 통상정책은 성장과 격차축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배타적(익스클루시브)성장을 위한 통상정책이 아닌, 포용적(인클루시브)성장을 위한 통상정책과 이노베이션을 가능케 하는 통상정책을 양측으로 하고 있음
 - 여기서 포용적 성장은 동반성장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인클루시브 통상정책으로는 ①신신무역이론에 의한 글로벌 활동에 대한 참가지원대책의 중요성 인식, ②중소기업과 GVC의 연결강화, ③관광, 농업관련 시책 등임
 - 특히 신신무역은 21세기 형 통상정책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서, 종래 무역이론과는 다르게 동일업종 내에서도 수출고정비용의 부담 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글로벌 경제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 중에도 정책적 지원여하에 따라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밝힘
- 이노베이션을 가능케 하는 통상정책으로는, ①글로벌기업의 수익력 향상, ②연결산업화 추진, ③이노베이션에 필요한 인적투자 및 교류, ④제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인재육성 등임
 - 여기서 특히 연결산업화는 제 4차 산업혁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기술혁신으로 데이터, 기술, 인간, 조직 등 여러 가지 것들의 연결에 의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을 말함. 

□ 2017년판 통상백서 목차

제 1부 세계경제편

제 1장 세계경제동향

- 제 1절 세계경제동향과 리스크
- 제 2절 자원가격의 동향과 리스크
- 제 3절 세계 주요국·지역별 대외경제관계

제 2장 구미경제동향

- 제 1절 미국
- 제 2절 유럽

제 3장 중국경제동향

- 제 1절 중국거시경제동향
- 제 2절 중국경제리스크

제 4장 기타 신흥국경제동향

- 제 1절 서남아시아·동남아시아
- 제 2절 중남미
- 제 3절 러시아
- 제 4절 중동
- 제 5절 아프리카

제 2부 분석편

<세계편>

제 1장 지속가능한 글로벌화를 위한 분석

- 제 1절 자유무역의 메리트
- 제 2절 소득격차에 대한 무역의 영향
- 제 3절 고용·임금에 대한 무역의 영향
- 제 4절 인클루시브 성장에 관한 국제적 논조

<일본편>

제 2장 일본통상정책의 방향성(새로운 통상정책)

- 제 1절 일본의 경상수지 동향과 시사점
- 제 2절 일본 통상정책의 방향성

제 3장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새로운 산업사회 창조를 위한 노력

- 제 1절 일본 글로벌기업의 수익력 향상
- 제 2절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과제

제 4장 일본의 인클루시브 성장을 위한 노력 강화

- 제 1절 로컬 중견중소기업의 GVC 참여강화
- 제 2절 지역경제의 생산성 강화

제 3부 정책편

제 1장 국제정책협조

- 제 1절 미일경제대화
- 제 2절 G7/G20관련 회합
- 제 3절 브렉시트에 관한 일본의 대응
- 제 4절 사이버에 관한 국제협조

제 2장 통상협정을 비롯한 룰 형성

- 제 1절 FTA/EPA
- 제 2절 APEC을 통한 지역경제통합과 경제성장 촉진
- 제 3절 WTO
- 제 4절 투자관련 협정
- 제 5절 조세조약
- 제 6절 룰 형성

제 3장 신흥국전략

- 제 1절 아프리카
- 제 2절 러시아
- 제 3절 중동
- 제 4절 아세안
- 제 5절 인도

제 4장 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기업의 연결(Connected Industries)창조를 위한 대응

- 제 1절 신산업구조 비전
- 제 2절 제 4차산업혁명하 인재·고용정책
- 제 3절 인적투자 촉진
- 제 4절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제 5절 내적인 글로벌화 추진

제 5장 인클루시브성장에 기여하는 일본의 노력

- 제 1절 신수출대국 컨소시엄
- 제 2절 식품수출관련
- 제 3절 인바운드 대응
- 제 4절 로컬기업의 생산성 향상

<참고자료>

『2017년판 통상백서』 경제산업성, 2017.6.27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7/whitepaper_2017.html